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441>

JCCT 2022-11-54

## 세계 강군의 다문화 적용사례 연구

### A Case Study of Multicultural Applications of World Military Powers

김인찬\*, 조상근\*\*, 김종훈\*\*\*, 홍명숙\*\*\*\*, 방동협\*\*\*\*\*, 박상혁\*\*\*\*\*

In Chan Kim\*, Sang Keun Cho\*\*, Jong Hoon Kim\*\*\*,  
Myung Sook Hong\*\*\*\*, Dong Hyup Bang\*\*\*\*\*, Sang Hyuk Park\*\*\*\*\*

**요약** 대한민국 육군은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병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고, 2010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이전까지 입대에 제한을 두었던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입대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50여 명의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입대하였으며, 당시 병무청은 2020년 이후 매년 8천 명 이상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육군에 또 다른 도전을 야기한다. 서로 다른 언어, 종교, 식습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될 경우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세계 강군의 다문화 적용 사례 연구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존중의 성공, 실패 역사와 현재 美 육군의 다문화 존중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 육군의 지향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요어** : 다문화 강군, 다양성, 다문화 장병, 페르시아제국, 세포이 항쟁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Army predicted that the continuous decline in fertility rate and the low birth rate,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our society, would lead to a security crisis due to a lack of military personnel, and revised the Military Service Act in 2010 to prevent enlistment of 'clearly mixed races', which had previously restricted enlistment. As a result, 50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nlisted in the military in 2011, an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t the time predicted that more than 8,000 people would enlist every year after 2020. This poses another challenge for the Army. A lack of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different languages, religions, and eating habits can lead to conflict among members, which will lead to weakening of combat power. Therefore, through a case study of multicultural application by world powers, the history of success and failure of respect for multiculturalism and the current policy of respecting multiculturalism of the U.S. Army are studie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our army.

**Key words** : Multicultural Power, Diversity, Multicultural Soldiers, Persian Empire, Sepoy Mutiny

\*정회원, 육군대학 소령지휘참모과정 학생장교 (제1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전략학처 전략학 교관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전투발전처 교리연구관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원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교학처 교육운영지원장교 (참여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0월 14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14, 2022 / Revised: October 30, 2022  
Accepted: November 5, 2022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 Korea

## 1. 서론

“(무슬림인)저는 한국에 온 지 14년 되었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남자아이 두 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은 한국인이기에 병역의무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돼지고기를 금기 시하는 무슬림의 율법 또한 따라야하기에 혹시 군대에서 차별받지는 않을까, 외모가 다르고 말투가 어눌한 것으로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무함마드 사 캅씨가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군 입대를 걱정한다는 다소 특이한 주제의 질문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1]. 이미 각종 지표를 통해 다문화 군이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예가 군 간부들이 임관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로 개정되었다. 이는 2010년 병역법의 개정으로 그전까지 입대가 불가하던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입대가 가능하게 된 것에 따른 변화이다.

표 1. 다문화 가족 및 자녀 숫자의 증가

Table 1.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구분	2018년	2019년	2040년(예상)
총인구	51,629,512명	51,779,203명	50,860,000명
다문화 가족	2,054,621명	2,216,612명	3,520,000명
비율	3.9%	4.2%	6.9%
0~18세 인구	9,260,000명	7,600,000명	5,780,000명
다문화 자녀 (0~18세)	237,506명	264,626명	490,000명
비율	2.5%	3.4%	11.7%

출처 : Statistical Office, Multicultural demographic statistics, 2019

다문화 가족 자녀 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현역 입대자 증가는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현역 복무 입대자원 부족과 이로 인한 전력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군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0년 51명의 현역병 입대를 시작으로 2012년 다문화 가족 자녀가 군 간부인 부사관으로 임관하였다. 2016년 조사 당시 776명의 다문화 장병이 군에 현역 복무 중이었다. 하지만 다문화라는 범주가 차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병무청은 다문화 장병 동반 입대 제도를 폐지하였고 군 역시 현황조사를 중단하였다.

국방부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입대가 2025년부터는 8천 명을 넘어설 것이며, 2025년에 복무 중인 다문화 장병은 약1.5만 명, 2030년에는 전체 군 병력의 5%가 다문화 장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문화 군으로 전환할 준비를 시작했다[2].

표 2. 다문화 가족 자녀 입영 검사 현황 및 예측

Table 2. Current status and prediction of enlistment inspection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구분	2019 ~ 2024년	2025 ~ 2030년
다문화가족 자녀 입영검사	40,235명	104,694명

출처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하지만, 관련 제도와 법령, 조직 문화개선, 관리 방법 등은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입영 수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장병의 복무에 관한 근거는 병역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부대관리훈령, 그리고 각 군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1년 6개월간의 병영생활에 관해서는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다문화 장병을 ‘차별’하는 자는 ‘처벌’한다.”라는 단편적 지침뿐이다[3].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첫 집단생활인 초등학교 생활 간 외모와 말투의 차이로 무리에서 소외되고 놀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한 경우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단체생활을 하는 군 역시 구성원끼리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체성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군 문화의 특성상 소수인 다문화 장병들이 지닌 다양성은 차이로 인정받기보다는 차별적 요소가 되어 학창 시절 겪었던 부적응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4].

이민자들의 국가로 불리는 미국의 군대에서조차 인종과 종교, 식습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갈등은 전투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미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도 정비와 구성원 교육, 문화개선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구성원의 장점을 융합하는 노력을 지속했으며, 지금은 대표적인 다문화 강군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군의 다문화 존중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리 군 또한 다문화 강군이 되기 위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 군으로의 전환을

단순한 인적 구성원의 변화로만 치부하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갈등의 정도는 다문화장병의 입대 규모와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며 갈등의 증가로 인한 사고는 전투력과 대군 신뢰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군의 다문화 장병 관리와 장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노력은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입대 의욕을 고취해 병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고 아울러 조직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로 전투력 향상까지 이룰 수 있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마찰이다.

이에 역사적으로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다양성 존중을 통해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뤄내어 통합에 성공한 사례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해 통합에 실패한 사례를 고찰하고 현재 미군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 II. 다문화를 적용한 군의 성공과 실패 사례

### 2.1. 페르시아제국의 통치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제국의 통치 방법은 다양성을 존중한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의 이란지역에 건설되었던 페르시아제국은 당시 동방의 패권국가로 불렸던 나라이다. 페르시아제국은 전성기 시절 동쪽으로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영토의 일부를, 서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발칸반도, 터키, 그리고 중앙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예루살렘까지 지배했다.

당시 페르시아제국은 20개 이상의 속국, 50개 이상의 부족으로 종교와 식습관, 언어까지 모두 달랐다. 이런 대제국을 운영하는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은 '다양성 존중'이었다.

#### 1) 종교의 다양성 존중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졌으며...(중략) 제국 내 국가들의 전통, 관습, 종교를 존중하며..." UN 인권선언문의 바탕이 된 기원전 550년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가 선언한 인권선언문이다. 키루스왕은 같은 민족이 아님에도 유대인들의 이민과 정착, 예루살렘의 신전 건축을 허락했고 지금까지 지원하는 등 타 종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와 신을

중시하는 그리스와 이집트인들에게도 그들이 숭배하는 신전의 건축과 종교의식을 허락했다. 왕과 페르시아 지배계층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였으며 구약성경 에스라(1:1~3), 구약성경 이사야(45:1~3)에서도 그의 종교 존중을 확인할 수 있다[5].

#### 2) 언어의 다양성 존중

이란 케르만샤주의 베히스툰 산에는 다리우스 1세 왕이 세운 비문(碑文)이 있다. 왕의 부조상(浮彫像)과 약18,900글자가 기록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정복민들이 사용하는 바빌로니아어(아카드어), 엘람어와 페르시아어를 함께 사용한 점이다. 다리우스는 이 비문을 문서로도 속국들에게 발송했는데 이때 사용한 언어는 공식 석상에서 널리 사용되던 아람어였다. 페르시아는 통역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언어로 인해 소통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페르시아는 식민지 지배간 획일적인 언어의 통일보다는 각 민족의 언어와 거기에 담긴 정신을 존중함으로써 대제국을 통치했다.

#### 3) 식문화 차이 해소 노력

드넓은 영토는 그만큼 다양한 기후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다. 다양한 부족과 종교, 문화에 따라 금기시하는 음식이 상이했다. 왕은 사트라프(Satrap)라고 하는 관료를 파견하고 지방의 특색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간 조직된 군대는 다양한 지역 부족들로부터 징발한 군인들이었기에 식습관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페르시아 중앙정부는 각 지방 사트라프로부터 종합된 식문화를 바탕으로 군인들이 취향에 따라 식사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였고, 이는 병사들이 식민국가에 징집된 노예가 아닌 페르시아의 전투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6].

통일된 식단은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다. 하지만 자신의 문화에서 신성시하거나 금기하는 음식이 있을 경우 해당 전투원은 식사를 거부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며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사기 저하와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식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전투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큰 교훈이다.

## 2.2. 세포이 항쟁

1857년 5월에 일어난 세포이 항쟁은 영국이 고용한 다문화 군을 지휘하면서 각 군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 발생한 인도 용병들의 반란이었다. 이 항쟁은 다문화 군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다문화 군의 전투력 약화는 물론 조직 와해까지 불러온 대표적 사례이다.

### 1) 종교의 다양성 무시

세포이 항쟁의 누구도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소총의 장전 방식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은 성능이 개량된 신형 P1853-엔필드(Enfield) 소총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탄통(탄약과 탄환 보관)의 종이 포를 뜯어 탄약을 총신에 넣고, 탄환과 종이로 총구를 막으면 탄약의 폭발압력으로 탄환이 발사되는 방식이다.

탄통을 둘러싼 종이 포는 방수의 목적으로 소와 돼지의 기름이 사용되었고 총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으로 종이 포를 뜯어야 했다. 당시 세포이 용병 대다수는 힌두교, 이슬람교 신자들이었다.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여 입에 넣는 것을 금기하고, 이슬람교는 돼지를 불경 시 하여 입에 넣는 것을 금기한다.

이 총을 사용하는 순간 힌두교와 이슬람교 신자 모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어겨야 했기에 저항의 의미로 소총과 탄약 수령을 거부했다. 영국 지휘부는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갈등의 움직임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수령 거부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이 갈등은 인도 각지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인도 독립 운동사에서는 1차 독립 전쟁이라 부를 만큼 거센 저항으로 번졌다.

### 2) 문화의 다양성 무시

영국은 인도 전역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 세포이 용병을 벵골, 뭄바이, 마드라스 지역에 배치하고 중국, 버마(현재 미얀마)와의 전쟁에 파병하였는데 여기서 갈등이 발생했다. 벵골 지역의 용병들은 인도 신분제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대부분이었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의 율법이 담긴 마누법전에는 누구든 해외로 나갔다 인도로 돌아오게 되면 최하위 계층인 수드라로 강등한다는 내용이 있다. 벵골 용병은 군의 명령을 듣고 신분 강등을 택하거나, 직업을 포기하고 파병을 거부해야 하는 극단적 선택에 놓였다. 벵골 지역은

가(家)업으로 대를 이어 세포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직업과 신분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반발을 예상한 영국은 [일반복무규정]을 발표하여 해외파병에서 벵골 지역 용병을 일방적으로 제외하였다. 파병 제외는 진급, 급여 등 각종 처우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불만이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인도 신분제의 하위계층이 많은 타지역 용병들은 벵골 지역 용병이 안전한 국내에만 복무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영국 지휘부와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 3) 민족의 다양성 무시

인도는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영토에 소수민족이 많은 다인종 국가이며, 국어가 없고 힌두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다언어 국가이다. 세포이는 출생지역에 따라 선발했기에 현지 지형과 기후, 언어에 익숙했다. 최초 2만6천 명 수준의 세포이가 나중에 28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영국의 세포이 의존도가 높았으며, 세포이가 가진 다양성을 강점으로 활용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영국은 현지 사정의 고려 없이 본토 육군의 인사제도를 적용했고, 특히 영국사관학교를 졸업한 젊은 백인 장교들이 인도 오지 개척과 중국-버마 전쟁까지 참전한 노련한 세포이보다 먼저 진급함으로써 세포이들의 진급 적체가 심해졌다. 우수한 전과(戰果)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도달하여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후배 용병들에게 지휘부에 대한 불신과 복무 의욕 저하로 이어졌다. 또한, 군 복장의 '획일성'과 '통일성'을 이유로 세포이들이 인도의 사회 계급에 따라 착용하는 터번, 의복 부착물을 모두 금지시켰다. 통제는 영국군과 동일하지만 대우는 영국군보다 못한 현상의 경험이 누적되자 '인종차별', '민족정신 말살' 등과 같은 감정이 고조되었고 결국 세포이 항쟁이 발발하였다[7].

앞선 사례들에서 우리 육군이 주목할 부분은 다양성과 다문화 존중을 보여주는 실천적 행동이다. 이는 단 순히 차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상위개념이다.

영국 육군은 세포이를 인종, 민족, 카스트제도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채용하여 구성원으로 인정하였다. 세포이와 함께 중국, 버마와의 전쟁에도 참전하며 '전우'로 대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진급 제도

파병제도, 복장 제도 등 그들의 다양성과 다문화화를 존중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실천적 행동이 부족했고 누적된 불만은 소총의 장전 방식이라는 아주 사소한 계기를 통해 폭발하였다. 페르시아제국이 제국 내 국가들의 전통, 관습, 종교를 존중하고 심지어 그들의 언어와 식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 것과 대별되는 부분이다.

### 2.3. 미군의 다문화 존중 정책

#### 1) 루니 룰(Rooney Rule) 제도 시행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루니 룰’이라는 제도는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역의 인종과 언어, 문화를 고려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을 그 국가 및 지역에 친화적인 인원으로 보직시키는 제도이다. 미 본토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보다는 중동 등 특정 지역에 부대를 전개하여 원정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특성상 미군의 전통적 주류인 백인, 영어, 기독교계 그룹의 군인보다는 중동인, 아랍어, 무슬림 또는 이슬람계 군인이 임무 수행에 적합하며 현지 친화의 효과도 좋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2) 소수자를 위한 전투식량 제공

또한, 미군의 전투식량(MRE, Meal Ready to Eat)은 24종류로 채식주의자용, 무슬림용, 유대교용 등 소수자를 위한 전투식량을 갖추고 있다. 소수인종들에게 백인과 같은 동일한 전투식량을 보급하는 것은 단순히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문화와 식성의 차이를 다른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화, 행동화하는 것은 다양성과 다문화화를 존중하는 것이다[8].

#### 3) 미군의 다문화 존중 정책의 의의

다문화 강군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군의 다문화 존중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미군의 다문화 존중 정책 역시 과거 미군 내 인종과 종교, 식습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부대를 통합하여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보완된 정책이며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다문화 군으로 전환간 직면하게 될 마찰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와 구성원 교육, 문화개선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구성원의 장점을 융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2.4.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앞선 페르시아제국과 영국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문화 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종교와 언어, 문화,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 군을 존중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단결된 조직이 군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가치관과 대적관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간 활약 중인 국제군단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국제군단의 창설 배경 및 규모

국제군단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창단한 외국인 자원병으로 구성된 군대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2월 27일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한다는 목표로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의용군 지원자와 용병 중심의 국제군단 창설을 발표했고, 이후 외국인 자원병이 급증하였으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2022년 3월 6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에서 온 지원군이 모두 2만 명에 달하며, 모두 52개국에서 자원자가 왔다고 밝힌 바 있다[9].



7:59 PM - Mar 5, 2022 - Twitter for iPhone

출처 : Twitter, Ukraine, 2022

그림 1. 국제군단 모집 홍보  
Figure 1. International Corps Recruitment Promotion

## 2) 국제군단의 활동

우크라이나의 의용군 참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라며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의 입국 자체를 범으로 금지하는 등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발표한 지원군의 대략적인 규모 외에는 국제군단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우크라이나 영토방위 국제군단에 소속된 의용군들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통제를 받으며, 2022년 3월 7일부터 수도 키이우 방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10].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국제군단 모집 홍보 및 일부 활동을 제시하여 홍보함으로써 부족한 전투 병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출처 : Twitter, International Legion of Defense of Ukraine, 2022

그림 2. 국제군단 활동 홍보  
Figure 2.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rps activities

## 3) 국제군단의 의의

국제군단 자원병 중 일부 인원은 참전 상한선인 60세의 나이에, 일부 인원은 자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전하고 있으며, 일부 인원은 시리아, 벨라루스, 이집트 등 친러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참전하였다. 비록 이들이 충분한 전투 수행 능력과 전투 장비, 지속지원 능력을 갖추지 않아 전투원으로 볼 수 없다는 관점도 존재하지만, 이들의 자원만으로도 결사 항전의 구심점이자 국제사회의 지지, 서방국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다.

군사 강국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인종과 종교, 문화가 다른 타국의 의용병들이 자신이 가치관에 따라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타국의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전하는 모습은 다문화 군으로 전환되고 있는 우리 군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페르시아제국의 다문화 존중과 배려를 통해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시킬 수는 있지만, 단결된 개인의 가치관과 대적관, 목표가 다르다면 결국 이러한 다문화 군을 운용함에 있어서 큰 마찰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의 융합과 단결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공통된 가치관과 대적관, 그리고 일치된 목표를 부여할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III. 결 론

우리 육군은 병력관리라는 이름으로 전시 전투력 발휘를 위해 평시부터 부하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육군의 인적 구성원의 다양화와 다문화가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정 종교나 문화에 따라 다른 식단을 요구할 수 있고, 훈련 중 기도 시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언어의 차이와 한국어 미숙으로 영어나 특정 언어로의 통·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외국인일 수 있고, 이성 친구 역시 외국인일 수 있기에 부하의 신상에 관해 그들과 소통할 때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소통해야 할 수 있다.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타 문화의 장점을 포용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개인에서부터 군 조직의 차원까지 공동으로 해나간다면 구성원들의 단결력은 높아지고, 조직에 대한 신뢰는 커질 것이다.

우리 군을 다문화 강군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인정과 배려를 통해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시킴과 동시에 단결된 군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이 추구하는 단일화된 가치관과 대적관을 가져야 한다. 군이 다문화 군으로 변화될수록 군내에 친북 국가 다문화 자녀의 입대 역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일부 탈북민의 자녀 역시 입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대 자원에게 군이 지향하는 명확한 가치관과 대적관을 심어줄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의 국제군단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진행 중인 다문화 군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구성원의 문화와 종교, 인종, 언어는 다양하지만, 이들의 조국은 하나이며 동일한 가치관과 대적관을 바탕으로

단결된 하나의 군대로 온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천적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 References

- [1] <https://www.youtube.com/watch>
- [2] <http://news.kmib.co.kr>
- [3] K. J. Song & I. C. Kim & Y. J. Jang & K. J. So,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multicultural value respect leadership training program : focused on the military cadets',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Vol. 13, No. 2, pp. 37-64, 2020.
- [4] W.K. LEE & H.E. YOO & C.H. LEE,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Juvenil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 21, No. 1, pp. 65-90, 2019.
- [5] D. G. Han, 'The Experience of Globalisation in the Persian Period and the Israelite Values, Norms and Human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Vol. 44, No. 4, pp. 109-128, 2020.
- [6]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7/11/793994/>
- [7] V. Chaturvedi, 'Remembering Warfare in the Age of Empire - V. D. Savarkar and the Writing of Nationalist History', Vol. No. 2, pp. 105-145, 2009.
- [8] M. H. Jeong, 'The Study of the US Army's Racial Discrimin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1, No.3, pp. 277-303, 2010.
- [9] <https://www.news1.kr/articles/?4607157>
- [10] [https://www.ytn.co.kr/\\_ln/0104\\_2022030806282659](https://www.ytn.co.kr/_ln/0104_2022030806282659)